

장마에 … 태풍에 … 과일 채소 생선 ‘금값’

## 추석물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 양동시장 구입 추석 상차림 18만8500원

주부 김희수(39) 씨는 지난 주말 시아버지 제사상을 준비하려 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제수용 배 1개에 1만원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 치도 1단(250g)도 5000원에 유팔렸다. “추석이 다가오면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상인들의 말에 김 씨는 한숨이 절로 났다.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학교 개학으로 급식용 납품이 크게 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일부 농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대 3배까지 올랐다.

특히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과 채소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물가협회에 따르면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가격은 20kg에 4만3050원으로 1주일 전(4만2550원)보다 500원 올랐다.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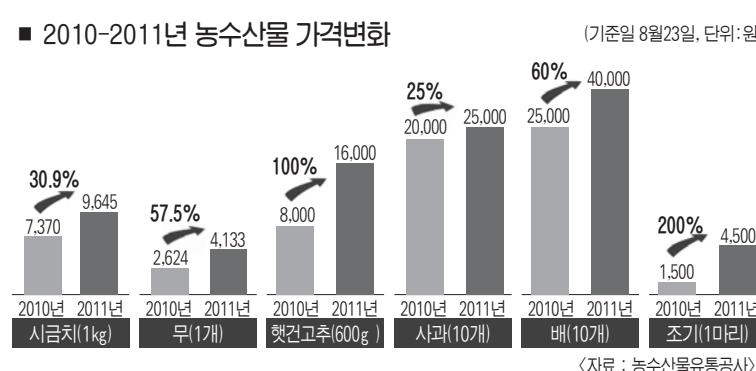
해(4만300원)와 비교하면 6.8% (2750원) 상승했다. 짧은 1kg에 1만5240원, 녹두는 1만5000원으로 지난해(8930원, 8200원)보다 각각 70.7%와 82.9%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9일 3310원 하던 고냉지(무1개)도 2주사이에 4133원으로 24.9% 올랐고, 지난해(2624원)와 비교하면 57.5% 상승했다. 헛건고주는 600g에 1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꽤 2배 올랐다.

식량작물과 채소 가격의 상승은 산지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일조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수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다. 삼겹살을 중 하나인 시금치 가격은 1kg에 9645원으로, 1주 전(7410원)보다 30.2% 올랐다.

차례상의 대표과일인 배는 10개당 4만원으로 지난해 2만5000원보다 2



배 가격이 올랐다. 특히 나주와 영암 등 주산지에 불어닥친 태풍 무이아의 영향으로 상당수 배가 수확 전에 떨어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사과(10kg)도 지난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0% 상승했고, 곶감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올랐다.

잦은 비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한 조기도 가격이 올라 지난해 한마리당 1500원에서 4500원으로 3배나 급등했다.

이같은 농수산물 상승으로 추석 상차림이 지난해보다 7.7% 상승한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학교 개학으로 급식용 납품이 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물량 확보 경쟁까지 겹쳐 오름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기자 jwpark@kwangju.co.kr

4% 증가한 41억9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중국(16%)과 동남아(34%)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동(-81%)과 EU(-40%) 등은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 7월 무역수지 1억1300만달러 적자

#### 광주본부세관 분석

광주·전남 지역의 7월중 무역수지가 1억13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분석한 ‘2011년 7월 광주·전남 무역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7월 수출은 전달보다 8.2% 감소한 45억6400만

달러로, 수입은 2.1% 증가한 46억7700만달러로 무역수지 1억1천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광주의 수출은 전달보다 1.6% 감소한 1억2200만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4억8300만달러로 6억3900만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은 기계류와 정밀기기(-9%), 가전제품(-14%) 등 주요 품목이 전달보다 감소했고, 국가별로 동남아(31%)와 중국(20%) 수출은 증가했으나 미국(-8.9%)과 중동(-15%) 등에서 감소했다.

광주의 수입은 가전제품과 철강재가 각각 19%와 40% 증가했지만 기계류와 전기·전자기기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폭(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동(36%)에서 수입이 증가했으나 미국(-24%)과 중국(-10%)에서의 수입이 감소했다.

전남의 수출은 석유제품(3%)과 철강제품(14%) 수출은 증가했지만 화공품(-17%)과 선박(-56%) 등의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주택대출 증가율은 7.0%로 대구(4.6%), 충북(4.7%) 다음으로 낮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았다.

200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362조5940억원에서 402조8898억원으로 11.0%, 비수도권은 187조7828억원에서 214조9630억원으로 14.5% 각각 늘어났다.

전국 가계대출은 6월 말 현재 367조7648억원으로 지난해 말(338

조4754억원)보다 11.3%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북(24.8%), 인천(23.0%), 대전(22.5%), 부산(22.3%), 광주(21.9%) 등도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